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서대문공동체)

추 · 석 · 감 · 사 · 예 · 배

가정 예배 지침

- 1)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 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 2)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을 세워 놓고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소박한 상품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338장(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창세기 28:16~22, 35:1~7	다같이
설교	벤엘에서 엘벤엘로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다같이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경배와 찬양 67장(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벤엘에서 엘벤엘로

들어가는 말

추석이 담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 만나는 ‘고향’ 일 것이며 그것은 ‘귀향’이라는 말로 잘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곱의 생애는 집을 떠

나는 삶과 집으로 돌아오는 삶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와 다시 돌아올 때의 여정에서 만났던 하나님 체험은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벤엘”(하나님의 집) : 아곱은 형 에서에게 팔족으로 장자의 복을 가로채어 형의 극한 분노를 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곱은 고향

집을 떠나는 도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는 하란으로 도주하던 길에 노숙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베고 잔 돌을 취해 기름을 부으며 자신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서원과 함께 그곳을 ‘벤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이후 아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억척스럽게 일하며 열한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창 30:43)고 묘사하고 있는데, 아곱을 가리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긍정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매우 인간적인 속임수와 잔꾀로 얻은 결과물임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벤엘”(벤엘의 하나님) : 20년이 지나 아곱은 처자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크게 두려워했지만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고 아곱은 무사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삶의 자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곱은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곧 세겜의 추장이 외동딸 디나를 성폭력했고 아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유혈복수극을 벌이면서 몰락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창 34:31). 그러나 아곱이 세겜에서 도주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 “벤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창 35:1) 아곱은 비로소 자신이 20년 전 서원했던 ‘벤엘’을 다시 방문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벤엘’ 즉 ‘벤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명명합니다. 아곱의 신앙이 ‘벤엘’(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에 대한 신앙고백에서 ‘엘벤엘’(벤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곱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가는 말

아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며 벤엘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장막을 친 것은 자신이 벤엘의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번성하여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창 31:38-41). 그러나 아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와 물질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벤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고향집에 함께 모인 우리는 다른 어떤 결과들보다 지나온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족이길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 · 모 · 예 · 배

개식사	인도자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80:1~3 다같이
찬송	찬438장(내 영혼이 은총입어)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창세기 50:15~21 가족 중에서
설교	위로와 구원, 그리고 섬김 설교자
찬송	찬212장(검손히 주를 섬길 때)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위로와 구원, 그리고 섬김

들어가는 말

고인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단지 고인의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아직 삶의 여정 가운데 남겨진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위로하는 삶으로”(19절) : 아버지 아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과거 그들의 죄악에 대한 요셉의 복수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요셉에게 간곡히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난 후 남은

자들의 삶에는 슬픔과 함께 근심과 염려, 때로는 갈등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로서의 우리는 서로에게는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사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20절) :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형제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곧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인이 떠나신 후 남겨진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삶이란 단순히 행복하며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며,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마저 신실하게 극복하며 승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섬김의 삶으로”(21절) : 요셉이 형제들에게 전한 위로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신앙고백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라는 말로 자신의 현신을 약속하며 실천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은 어린 시절 꾸었던 꿈,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였다’는 꿈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자란 섬기는 자라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막 10:45). 고인을 추모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섬김의 삶입니다.

나가는 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이후 남겨진 자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며 소망을 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현신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오늘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